

다호인 - 수양벚나무

다호인은 선종의 최대 종파인 조동종의 사원입니다. 1489 년에 현재의 이바라키현에 건립되었으며, 수십 년 동안 다가야 가문의 보리사로 이용되었습니다. 1602 년 사타케 요시노부(1570~1633 년)가 구보타번(현 아키타현)의 다이묘(넓은 영지와 가신단을 갖춘 무사를 말함)가 됐을 때 그의 많은 가신과 지지자들이 동행했습니다. 다가야 가문은 혼인과 충성으로 사타케 가문과 묶여 있었고, 보리사와 함께 구보타로 이주해 왔습니다. 1610 년 다호인은 히야마성 바로 아래에 재건되었다가 1771 년에 지금의 자리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정문(산문)은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으로 다가야 가문의 격식으로서는 다소 이례적입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는 에도시대(1603~1867 년)에 시행된 도쿠가와 막부의 '참근교대' 정책으로 야기된 재정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근교대에 의해 다이묘와 다가야 가문의 가신은 자신의 번과 에도의 도읍(현재의 도쿄)에서 번갈아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두 곳의 주거지를 유지하고 다이묘 행렬로 에도를 오가는 의식을 치르기 위한 비용은 지속해서 재정을 압박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원에 남아 있는 기록에 따르면 다가야 가문은 다호인 건설 자금을 모으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본당은 1771 년에 재건되었으며 관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또한, 다호인의 종교적인 관습은 신도의 측면도 계승하고 있습니다. 1868 년 메이지 신정부가 전국적인 신불분리령을 시행하기 전까지 불교 숭배와 신도 숭배의 융합은 신사와 절에서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날 다호인 같은 신불혼효 시설은 비교적 드문 존재입니다.

그 밖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본당 천장에 있는 커다란 원형 용 그림과 정면 통로의 '우구이스바리 마루(나이팅게일 마루)'입니다. 이 마루는 침입자의 침입을 막기 위해 걸으면 큰 소리가 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원 부지에는 커다란 수양벚나무가 늘어서 있어 봄에는 벚꽃을 감상하는 꽃놀이 인기 명소가 됩니다.